

바람직한 축제문화

- 대동제의 의미 -

한 주 연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3년

대동제 기간이 되면 흔히 벌어지는 풍경이 있다. 수업을 휴강시키려 하는 과대표와 그것을 반대하면서 수업을 강행하려는 교수님들의 실갱이가 그것이다. 과대표는 이미 최고조에 달해있는 동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교수님들을 끝까지 설득한다. 물론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기분 좋게 휴강을 허락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쓴 소리 몇 마디는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예는 전국의 어느 대학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일 것이다.

하지만 위 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학생들은 대동제때 단지 '놀이 위해' 휴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동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것이다.

흔히 대학의 대동제를 대학문화가 총 집결되는 공간이라 표현한다. 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모든 학생들이 대동제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즉, 대동제는 대학의 고유한 문화라는 것이다.

대동제의 '대동'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뭉친다는 뜻이다. 짐작할 수 있듯이 학생, 교수, 직원, 지역주민 등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모여 한데 어우러지자는 뜻이다. 이것에는 그간 한국의 대학이 지니고 왔던 고

유의 문화를 말해준다. '함께 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항거하던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모두 모여 자유롭게 말할 수 없음을 슬퍼하고 애달라 했으며 그러한 기운이 많이 감소한 지금에도 1년에 한번 학과·단과대 학생들, 그리고 평소에 쉽게 함께 할 수 없었던 교수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신명나는 한마당을 펼치는 것이다. 세상이 각박해졌듯 대학 또한 예전의 문화와 다른 지금 이렇게 1년에 한번이나마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는 더욱 중요하다.

또 다른 이유는, 대학은 전공 공부만이 아닌 올바른 사회인을 육성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이 필수적이다.

학문을 위한 학문을 추구했기 때문에 생긴 사회의 폐단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생명공학 논쟁도 궤를 같이 한다. 학자들은 인류의 식량난 해소와 인간의 유전병, 여성의 불임 등의 해결을 위해 생명공학의 육성을 찬성하지만, 시민들은 그것이 현실사회의 생태계에 적용될 때 그 파장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생명공학 논쟁의 핵심이다. 두 입장차이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한쪽은 이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현실 반영의 효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것은 우리 나라 학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개인의 노력 여하를 두고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때부터 이런 연구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이론적인 측면의 공부만을 했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이나 이외의 것들을 배운 적이 없다. 공부하는 과목을 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기초적인 학문과 전공을 심화하는 학문들 외에 사회성을 기르고 공공성을 생각할 수 있는 어느 무엇도 없다.

이러한 대학교육 아래에서 대동제와 같은 수업 외의 활동들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교우들 및 다른 대학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문화를 가지면서 위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으로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대학생들의 사회성 등 여러 요소들을 배우고 함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번째 다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위상이란 것이다. 고등학생의 80%가 대학의 진학하는 요즘 '대학'이란 단어가 '60년대처럼 가슴떨리는 단어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많은 부분이 존재한다.

대학의 대동제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몇 년전 대동제에서 거리 축제나 지역민들을 초청한 노래 자랑 등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으며 이것은 최근 다시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찾는 것을 어려워하며, '문화는 사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윗세대들에게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덤으로 젊은이들

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에 참가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일 것이다. 윗세대가 아니더라도 대학축제에 구경오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나마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대동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학이 또는 대학생이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상의 문화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의 대안적인 성격의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펼쳐지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 해도 아직까지 대학의 대동제 만큼 시민들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대동제가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자치'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자치'라는 의미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 영역이라는 뜻도 포함된다. 물론 독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요구를 할 때 그것은 지켜주어야 한다.

이런 '자치'의 의미에서 대동제는 학생들이 지켜내려 하고 있는 문화이고 행사이며 그러한 경우 구성원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



동제 때에는 이를 존중하고 함께 하기 위한 교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다.

윗 글의 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동제에 비취볼 때 너무 이상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위의 예는 대동제의 보편적인 위상이며 이상향이긴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몇몇 학우들만의 고민이지 대부분의 학우들은 소중한 수업시간을 빌려 음주에만 신경쓰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동제 기간에 수업을 강행하고 대동제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좋은 축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교수님들과 구성원들이 함께 도와야 한다. 대학문화가 날로 대중문화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현시대에 그런 것들을 그나마 보완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문화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대동제는 매우 중요하다. 대동제가 주점 위주로 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예로 대동제 기간에 수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와 같이 대동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학내·학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대동제의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저 학생들이 며칠 허가내어 노는 수준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동제는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이다. 따라서 대동제때 '휴강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실갱이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지금의 대동제 모습이 어긋나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박민**

한주연

인하대 신문사 편집국장으로서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